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의 정치

- 양원식 소설을 중심으로

오 창 은*

차 례

- | | |
|-----------------------------|-----------------------|
| 1. ‘반종파투쟁’의 후폭풍 | 4. 정체성의 정치를 위한 탐색의 서사 |
| 2. 연애서사를 통한 상상적 해결 - 욕망의 굴절 | - 무국적자의 감수성 |
| 3. 그로테스크한 복수의 서사 - 은폐된 공격성 | 5. 유보의 감각과 정치적 무의식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특징을 양원식의 소설을 통해 규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양원식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인 세대 중 제3세대의 유형을 대표한다. 그는 구 소련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양원식은 국적이 거부된 고려인 무국적자 신분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양원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비교적 뚜렷한 예술가적 자의식을 갖고 문학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길항하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예

*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강의전담교수

술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예술관으로 인해 그의 작품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체적 일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양원식은 구 소련에서 간행되던 신문 <레닌기치>에 소설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사후에 유고집 형식으로 소설집 『칠월의 소나기』(2007)를 간행했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는 연애서사가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엘레나』와 『칠월의 소나기』를 들 수 있다. 이들 서사에는 ‘북조선’과 ‘소련’ 사이에서 선택을 유보하며 경계인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구 소련에서 겪은 인종적 차별을 서사화한 『쏘바꼬예드(개고기 먹는 인종)』와 무국적자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녹색겨주증』은 특히 주목을 요하는 문제작이다. 이 작품들에서 양원식은 ‘경계인(고려인)의 경계인(무국적자)’로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삶의 양태를 서사화했다. 『쏘바꼬예드(개고기 먹는 인종)』가 현실의 문제를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녹색겨주증』은 신분상의 제약에 속박당한 예술가의 자의식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형상화했다.

양원식 소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을 경계인의 감각으로 서사화했다는 측면에서 다시 조명 받을 만하다. 그는 북조선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윤리적 갈등을 하는 젊은이의 내면세계를 그리는가 하면, 이웃과 불화하면서도 디아스포라적 감성을 갈무리한 채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고려인의 고통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또한 알레고리적 기법을 통해 문학의 영역 속에서 상징적 복수를 감행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기획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양원식의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감수성은 선택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삶의 감각이다. 이는 정치적 억압 상태에 있는 약소자(minority)들이 취하는 생존의 전략이며,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의식이기도 하다. 양원식의 소

설은 이주민의 특징적 감각을 ‘유보 혹은 지연의 감각’으로 적절히 포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고려인 문학, 양원식, 정체성의 정치, 정치적 무의식, <레닌기치>, 『칠월의 소나기』, 『엘레나』, 『쏘바꼬예드』, 『녹색겨주증』

1. ‘반종파투쟁’의 후폭풍 - 경계인의 정체성

훈풍은 1956년 2월 소련에서 불어왔다. 모스크바에서 ‘소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1인 체제’를 전격적으로 비판하며 ‘탈스탈린 운동’을 전개했다. 스탈린 체제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공격은 ‘집단지도체제’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주의권 전체에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 흐루시초프는 적극적으로 ‘평화공존 정책’을 펼쳐 동서 냉전체제를 완화시켰다. 주변국들도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북한이었다. 그간 김일성 중심의 1인체제 구축에 주력해 왔던 북조선 지도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 이후 남북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 시기에 소련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훈풍을 북조선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조선로동당’이 어느 지도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토론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권의 정치적 변화가 낫설 수밖에 없었다. 1956년 4월의 조선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소련 대표로 축사를 한 브레즈네프는 ‘조선로동당이 개인 숭배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 파문은 확산되었다.¹⁾ 김일성의

1) 이종석, 『북한의 권력과 역사학 :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 -친소파 · 남로계 · 연안파 ‘숙청’에 대한 최초의 연구』, <역사비평> 통권 8호, 역사비평사, 1989, 259쪽.

권력은 우월했지만,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안독립동맹 계열의 지도자 최창익이나 소련 출신 고려인 계열의 박창옥이 북조선의 정치권력을 일부 분할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 지도체제’ 논의는 최창익·박창옥 계열에게는 일종의 정치적 기회이기도 했다.

사건은 1956년 8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예술극장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에서 터졌다. 이 회의는 소련과 동독 등 9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김일성의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돌연 김일성의 노선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상업상 윤공흠이 김일성 개인 승배를 비판하며, ‘집단 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²⁾ 이는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 운동’이 북조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즉각적으로 응징했다. 전원회의의 절대 다수는 김일성 지지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윤공흠 등의 비판은 곧바로 ‘반당종파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 행위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관련자들 출당 및 당직 박탈 조치를 내렸다. 이를 ‘8월 종파사건’이라고 한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과 이에 따른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격변은 1958년까지 지속되었다. 김일성 정권은 이 시기에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수 많은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도 했다.

1956년 8월 전원회의의 결정이 모스크바와 북경에 알려지면서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었다. 중국은 국방부장 팡덕회를, 소련은 부수상 미코얀을 평양에 파견해 ‘8월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김일성은 다시 1956년 9월 23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를 열어 최창익·박창옥을 당 중앙위원으로 복귀시켰고, 윤공

2) 김학준, 『북한 50년사』, 두산동아, 1995, 189~190쪽.

흙·서희·이필규등의 당적도 회복시켰다.³⁾ 정치학계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압력에 의해 김일성이 굴복한 이 사건이 오히려 김일성 단일 지도 체제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 북조선의 정치체제가 위협받으면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는 국제정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교조주의’를 비판하며 구성되었다.⁴⁾ 이 사건 이후 북조선 내에서 ‘반종파투쟁’이 전개되어 반대파들이 1958년까지는 대부분 숙청되었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⁵⁾ 문학계에서도 도식주의 논쟁과 8월 종파 투쟁을 연결해 논의하고 있다. 전후 시작된 도식주의 논쟁은 1956년경에는 도식주의 비판이 핵심 쟁점이었다가, 1957년과 1958년에는 문학계 내의 부르조아 작가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⁶⁾ 김재용은 이 시기에 도식주의 비판이 좌절됨으로써, 북한문학이 ‘올바른 진전을 통해 풍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한다.⁷⁾

-
- 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77~78쪽
 - 4) 북한 내에서 반종파 투쟁의 마무리는 1958년 3월 3일에 개최된 당대표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련계 총정치국장 최중학을 비판하고, 군사훈련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의 전범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 것과,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른바 자주노선의 확립이 이뤄진 것이다. (박종철, 『북한의 종파사건과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234쪽.
 - 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앞의 책, 79쪽.
 - 6) 김재용, 『전후 북한문학의 도식주의 비판』,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53쪽.
 - 7) “전후 북한문학계 내부에서 제기된 도식주의 비판은 1958년 말에 이르러 좌절되었다. 1958년 10월 14일, 『작가 예술가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발표된 후 문학계 내부에서는 그 지침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비판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도식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제창하고 창작하였던 대부분의 비평가와 작가들이 부르조아 작가 혹은 부르조아 잔재의 작가로 지목되어 비판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후 다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더 이상 문학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위의 책, 71쪽.)

북조선의 ‘전후복구’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정치적·문화적 투쟁이 있었다. 1953년에는 전쟁 실패의 책임 때문에 박헌영 등 남로당 계열이 숙청되었고, 1956년에는 연안 독립동맹 계열과 소련 계열이 권력투쟁의 장에서 사라졌다. 반종파투쟁의 여파로 1958년초까지 1천여명에 이르는 인물들이 중국과 소련으로 도피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 대거 이뤄진 것이다. 소련 계열이었던 기석복·정상진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영역에서도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북한내의 반종파 투쟁으로 인해 소련과 계열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등지로 떠나야 했다.

한 국가 내부의 권력투쟁은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조선의 ‘반종파투쟁’의 여파로 모스크바 유학생 신분에서 갑자기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바뀐 이들이 있었다. 모스크바의 국립영화대학, 극장대학, 음악대학, 문학대학 등에 속해 있던 몇몇 학생들은 1956년 말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8차 재소련조선 유학생대회와 국립영화대학교 당 세포회의, 예술대학 초급 당회의 등에서 김일성 개인숭배와 개인독재체제를 반대하는 토론을 벌였다.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북조선 내에서도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북조선에서 ‘반종파투쟁’이 전개되어 그간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적 토론을 행했던 학생들이 청산의 대상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 토론이 빌미가 되어 몇몇 소련 유학생들은 ‘반당종파분자’, ‘조국 배반자’으로 규정되었다.⁸⁾ 갑자기 조국의 배반자가 된 유학생그룹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 뻔한 북조선으로 귀국할 수 없었다. 이들은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소련에 남은 길을 선택했다. 훗날 일부 유학생들은 소련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고려인 사회의 문화예술계 지도자로서 활동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리진, 한진, 허진, 양원식 등이다.⁹⁾

8) 양원식,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칠월의 소나기』, 어뮤징 아카데미, 2007, 119쪽.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특징과 그들의 정체성을 양원식¹⁰⁾의 소설을 통해 규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양원식의 소설을 주목하게 된 것은 다음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양원식은 고려인 문인 세대 중 제2세대의 한 유형을 대표한다. 고려인 문인은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번째 유형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연해주로 이주해 살다가 강제 이주 이전에 사망한 제1세대이다. 조명희¹¹⁾, 강태수, 김기철, 조기천 등이 대표적이다. 두번째 유형

- 9)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활발해졌다. 이명재는 중앙아시아 문학작품을 자료집 형태로 소개한 『소련 지역의 한글문학』(국학자료원, 2002)을 발간한 이후, 6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한국문화사, 2004)을 간행했다. 김필영은 단독연구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강남대 출판부, 2004)를 간행했고, 이어 장사선·우정권이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월인, 2005)를 출간했다. 최근에는 강희진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을 탈식민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연구한 『아무다리야의 아리랑』(문학들, 2010)을 간행했다.
- 10) 양원식(1932.5.19~2006.5.5)은 평남 안주군 남철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기간에는 인민군으로 참전했다. 전쟁 막바지에 외국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 전연맹 국립영화대학에서 수학했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하지 않고 소련에 남아 1958년부터 1960년까지 TV 스튜디오 카메라맨 영화감독을 했고, 1960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타 국립영화촬영소 감독으로 일했다. 1984년에는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 문예부장으로 근무했고, 1985년에는 카자흐스탄 국립단과기자대학을 수료했다. 1992년에 <고려일보> 부사장, 1994년에는 <고려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소련 작가동맹 맹원 팬클럽 회원,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고려분과장을 역임했다. 2000년에 '해외문학상 대상'을 수상했고, 2002년에는 서울에서 시집 『카자흐스탄의 산꽃』을 간행했다. 2006년 5월 5일 괴한의 피습으로 숨을 거두었으며, 사건은 미제 처리되었다. 유고집 소설집으로 한국에서 2007년 『칠월의 소나기』가 간행되었다.(이명재 편,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47쪽 참고; 양원식,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학이 걸어온 길』, <고려문학> 통권 1호, 중앙아시아문인협회, 2006, 37쪽 참고.)
- 11) 양원식은 1990년에 <레닌기치>의 문학예술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시기에 조명희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레닌기치>에 게재했다. 조명희의 딸 왈렌찌나 명희에브나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조명희의 사망 사실을 실증하는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대목이기에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소련공산당 제××차 대회후 1956년도에야 조명희선생의 명에는 회복되었으며 소련 작가

은 연해주나 사할린 등지에서 태어나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제1세대 문인들이다. 연해주 태생의 연성용, 김광현, 김두칠, 림하, 정상진, 태장춘과 사할린 태생인 이정희, 정장길, 최영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번째 유형은 해방 이전에 북한에서 태어나 소련으로 망명해 활동한 제2세대 고려인 문인들이다. 이들이 바로 양원식을 포함한 리진, 한진, 허진, 남철 등이다.¹²⁾ 네번째 유형은 흔히 ‘3세대 문인’으로 일컬어지는 김 아나톨리, 이정희, 강 켄리에타, 박 미하일, 손 라브렌치, 강 알렉산드르 등이다. 이들은 구소련에서 러시아어로 글을 쓰고 활동하는 작가들이다. 이 중 이정희는 고려인의 정체성을 한국어로 표현한 독특한 경우에 해당한다.¹³⁾

둘째, 양원식은 ‘경계인 속의 경계인’의 정체성을 지닌채 고려인의 생

동맹 맹원으로서의 지위도 회복되었다. 그 사망신고에는 사망된 날자가 1942년 2월 20일로 되어있다. 사망의 원인은 《급성결체조직염》이라고 써여져있었다. 한편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파된 말에 의하면 조선생은 극악한 불공정을 참지 못하여 자살을 하였다고도 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왈렌찌나를 비롯한 작가의 식구들과 우리 모두는 작가의 마지막날에 대하여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왈렌찌나 명희에브나는 혹시 부친의 발표되지 않은 작품 원고나 어떤 증명서, 개인소지품 등 아버지의 생애와 창작과 관련된 무엇이건 찾아보려는 희망을 품고 여러 기관들에 편지를 썼다. 결과 왈레찌나 명희에부나는 하바롭스크시 안전위원회 고고문서과에서 보고내온 새로운 사망신고를 받았는데 그 문서에는 사망일이 1938년 4월 15일로 되어있다. 사망원인은 《총살》이라고 써있었다. 사망신고와 함께 보내온 설명서에는 《조명희는 일본을 위한 간첩행위를 감행하는 자들을 협력한 죄로 헌법 제58조에 따라 취조와 재판도 없이 최고형-총살신고를 받았다》고 써있다.”(양원식, 『조명희 선생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자료』, <레닌기치>, 1990년 4월 4일자, 4면.)

- 12) 이명재·오창은,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특수성』,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문학』, 한국문화사, 2004, 19~20쪽.
- 13) 양원식은 고려인 문학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는 연해주 세대 문인 제1세대를 제1유형으로, 중앙아시아 이주문인 제2세대를 제2유형으로, 그리고 제3유형은 소련 망명 문인으로 꼽았다. 필자는 여기에 러시아어로 작업한 문인이 중심이된 제3세대 문인을 포함해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양원식, 『부자유 속에 태어난 신문 - 고려일보의 어제와 오늘』, <한민족공동체> 통권5호, 해외한민족연구소, 1997, 278쪽.)

활세계를 비교적 거리를 두고 형상화했다. 고려인은 소련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양원식은 게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망명객 신분으로 더욱 곤궁한 상황을 견뎌야 했다. 그는 고려인의 보편적인 생활과도 변별되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소련과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견지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소설적 개성으로 연결되어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특징을 그의 소설 속에서 발현하게 되었다.

셋째, 양원식은 비교적 뚜렷한 예술가적 자의식을 갖고 문학활동을 했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영화대학을 졸업한 후 카메라맨,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을 하면서 자신의 예술관을 피력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길항하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예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예술관으로 인해 그의 작품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체적 일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논자는 양원식으로 대표되는 고려인 문학을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의 표면과 이면을 함께 읽는 작업을 수행하려 한다. 사회적 모순 혹은 역사적 진실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텍스트에 기입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해 비평의 방법을 제안한 이가 프레드릭 제임슨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모든 텍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환타지”라고 하면서 “정치적 환타지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모순적 형식으로 접합시키며, 그 관계는 특정한 정치경제학 내에서 개개인을 구성해낸다”고 했다.¹⁴⁾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는 『정치적 무의식』에서 적극적으로 발현했다. ‘사회적 상징행위’로서 글쓰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저작에서 그는 “글쓰기 행위는 의식이 아니라 꿈과 같은 무의식의 작용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텍스트가 꿈처럼 현

14) 콜린 맥케이브, 최윤식 옮김, 『F. 제임슨의 문화이론과 영화분석』, <공연과리뷰> 제37호, 현대미학사, 2002, 197쪽.

실의 문제를 무의식의 차원에서 담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억압의 실체를 텍스트의 무의식 영역에서 발굴해 낼 수 있다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전략은 ‘고려인의 정체성’을 문학 텍스트 속에서 적극적으로 읽어 내려는 시도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비평의 방법을 통해 강제 이주와 소수민족 정책으로 인해 억압당했던 고려인의 정체성을 텍스트의 무의식 분석을 통해 밝혀내려 한다.

2. 연에서사를 통한 상상적 해결 - 욕망의 굴절

양원식의 소설은 <레닌기치>와 <고려일보>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한국에서 간행된 그의 소설집 『칠월의 소나기』는 중앙아시아에서 발표한 작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작가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작품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칠월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소련 유학생생활과 망명생활을 연에서사와 연결해 서사화한 작품들이다. 「엘레나」, 「7월의 소나기」¹⁵⁾, 「굴데르 레스토랑」이 이들 유형을 대표한다. 두번째 유형은 민족, 혹은 인종적 갈등을 재현한 문제적 경향의 작품이다. 「쏘바꼬예드(식견중)」, 「녹색거주증」, 「이웃」 등이 그 예이다. 세번째로, 민족적 정체성을 세대간의 관계 속에서 서사화한 작품이다. 작품으로는 「낙엽이 질 때」, 「7월의 소나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꼬부랑 할머니」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를 최명식은 노년의식이 드러난 작품으로 보고 고찰했다.¹⁶⁾ 네번째로 민족서사와 이산 및 고향에 대

15)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된 잡지 『해외문학』에서 수여하는 제3회 해외문학상 수상작이다. 원 제목은 「소나기」였으나, 단행본으로 엮으면서 「칠월의 소나기」로 제목을 변경했다.

16) 양원식의 소설 세계를 다룬 논문으로는 최명숙의 「양원식 소설에 나타난 노년 의식 연구」(<국제한인문학연구> 제6호, 국제한인문학회, 2009)가 있다. 이 논문

한 향수를 그린 작품이 있는데, 중편 역사소설 『등탑봉』,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나의 아버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중 195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자전적 중편소설 『엘레나』와 고려인 젊은이들 간의 삼각관계를 다룬 『칠월의 소나기』, 그리고 『굴데르 레스토랑』은 자유분방한 배우들의 연애를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엘레나』는 작가의 내면성이 적극적으로 투영되어 있어 주목해서 분석할 만한 작품이다.

중편소설 『엘레나』는 유학생 신분으로 갓 모스크바에 도착한 원일이 1953년말부터 1954년 여름방학 때까지 겪은 경험을 서사화한 자전적 중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전쟁 말미에 외국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에서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서사는 러시아인 여학생 엘레나와의 연애를 골간으로 하면서, 1950년대 전반기 모스크바와 북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풍부하게 기입되어 있다. 『엘레나』는 연애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서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숙한 유학생 원일이 이국 땅에서 적응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을 그리면서도, 거기에는 기억 보존을 위해 기록하고자 하는 작가의 충동이 곳곳에 배어 있다.

작가는 주인공 원일을 통해 8·15 이후 북조선 당국의 외국 유학생 후보자 선발과정, 예비유학생 의주 강습소 생활, 모스크바 정착 과정, 소련의 대학 교육체계, 북조선 대사관의 유학생 관리 실태 등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소설은 예술 영역에서 창작의 열정(연애서사)과 역사 기록의 열정(재현)이 소용돌이치듯 뒤섞여 있는 작품이다. 흥미로운 것은 1950년대 소련과 북조선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고, 『반종파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유학생들의 상황이다. 그 구체적인 면모가 주인공 원일의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

에서 최명숙은 노령화하고 있는 고려인의 노년의식을 양원식 작품 『낙엽이 질 때』, 『꼬부랑 할머니』,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등을 통해 살폈다.

원일은 1953년 9월 10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예비과에서 러시아어를 1년간 공부한 후 1954년 9월 1일부터 ‘소련 전연맹 국립영화대학교’에서 수학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학하기로 한 대학에 아직 기숙사가 없어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교(엠.게.우) 기숙사에 배치되어 생활했다. 북조선은 한국전쟁 중 젊은 군인 일부를 시험을 통해 유학생으로 선발했다. 북조선이 전쟁 중에 유학생을 선발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북조선은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전후 복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 유학생들은 현지생활 초기에 언어문제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한다.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압박은 ‘수학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이어져 유학생생활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주인공 원일 또한 9개월의 예비과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습득하여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대강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되려면 잠도 남보다 훨씬 적게 자야 했고 휴식일, 오락, 영화관람, 극장참관, 산책, 연애 같은 것은 생각도 말아야”¹⁷⁾할 처지였다.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러시아 여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갖게 된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 해석에 고심하다, 엘레나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다. 원일은 엘레나와의 만남을 통해 “러시아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얻어 본 것 같은 만족감이랄까, 남자로서 처음으로 낯모를 여자와 사귀게 된 우쭐해 진 느낌이라 할까 흐뭇해지는 감”을 느꼈고, 엘레나 또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동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랬던지, 아니면 그녀도 역시 여자로서 러시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 청년과 우연히 이루어진 사귀움의 만족감여서던지 꺼리꺼리나 불쾌해 질 근거는 조금도 느끼지”¹⁸⁾ 않는다. 적극적인 보호자를 자처하는 엘레나와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동양 유학생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언어

17) 양원식, 『엘레나』, 『칠월의 소나기』, 어뮤징 아카데미, 2007, 42쪽.

18) 위의 책, 45쪽.

를 매개로 현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언어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언어 습득 정도에 따라 서로의 관계가 친밀도 높아지는 여정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남성이 언어적 약자로, 여성이 모국어를 습득한 강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련 사회가 초기에는 종주국,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유학생을 포용하는 호혜의 관계였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호자/피보호자의 관계는 현지 적응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엘레나의 초대와 그 후의 관계진전이 그 예이다. 엘레나는 사권 지 한 달 즈음되자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팜보브란 도시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설 명절을 쇠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원일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그 제안을 거절해 엘레나를 실망시킨다. 소련의 법에 따라 외국인은 내무부 오비르(비자 및 등록국)의 허가 없이는 시외로 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를 어기고 외출했다 발각되며 북조선 대사관의 추궁이 따르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강제 귀국조치가 내려진다. 이러한 사정을 언어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원일은 이별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사흘 후 새해 음식을 싸 들고 기숙사를 찾아와 저녁식사를 동료들과 함께 하는 과단성을 보인다. 3.8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급격히 친해진 원일과 엘레나는 ‘빼온네르(소년단원) 야영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여름방학을 보낸다. 북조선 대사관에서는 엘레나와의 연애를 금하는 조치를 취했고, 유학생으로서 그에게는 오비르(외국인등록소)의 규제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원일은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엘레나와 함께 여름방학을 보낸 것이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일은 자신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엘레나의 곁에, 그녀가 습관된 환경에 한평생 있어 주려면 조국을 배반하고 귀국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지만 불편한 생활 속에서의 사랑이란 완전 무결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대상자에게 고통을 끼치는 사랑은 욕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임시, 유학기간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여자를 기만하여 유혹할 수도 없지 않는가? 이것은 짐승의 본능일 뿐이고 죄스럽기도 한 행동이다. 그러니 사랑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처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애써야 할 대신 이루어지는 사랑을 일부로 막아서야 하는 그 앞으로 닥쳐올 심리적 고통을 원일은 지금 타산하고 있는지...?19)

위의 인용문에는 북조선의 국비 유학생으로 갖는 책임감과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책임감이 중첩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매혹당한 감성적 욕망과 조국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이 겹쳐져 있기도 하다. 사랑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율적 행위라면 조국에 대한 의무는 자율을 제어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설 곳곳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북조선 대사관의 각종 통제는 자유롭고자 하는 자아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일은 사랑과 조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텍스트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원일과 엘레나가 구축하려는 사적 세계와 북조선 대사관에서 강제하는 공적 세계가 그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 두 세계의 충돌 속에서 갈등하며 작가가 텍스트 속에서 발현하는 ‘정치적 무의식’이다. 정치적 무의식에 대한 해석은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난 의미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프레드릭 제임슨은 ‘새로운 해석학’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²⁰⁾ 그 해석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구조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은폐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왜 양원식은 연애서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모스크바 유학 초기 생활을 재구성하려 했을까? 연애서사를 자신의

19) 위의 책, 105쪽.

20) Fredric Jameson, op.cit., p.21.

내면 세계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을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우선 ‘엘레나’의 형상화에 주목해 보자. 소설 속에서 엘레나는 러시아 상류 가정의 외동딸로 설정되어 있다. 그녀는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최우등생으로 일반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국립 종합대학교를 무시험으로 입학했다. 엘레나는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며, 솔직하고, 쾌활한 여성으로, 소설 속에서 결함이 없는 인간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흠결 없는 여인 형상은 매혹 당한 자가 매혹시킨 이를 그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엘레나의 형상’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상적이다. 작가의 어떤 상상적 충동이 이상화된 여인상을 작품 속에 투영하게 했을까?

『엘레나』에는 남성 로맨스가 표출되어 있다. 소설 속 원일은 “평남 안주군중 시절에 쓰련 잡지 『오고노크』의 어느 표지에 실려 있던 러시아 처녀”²¹⁾에 매혹당한 적이 있었다. 열여섯살이었던 북조선의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어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엘레나를 통해 ‘그 잡지 표지의 미녀’에 도취되었던 시절의 꿈을 실현한 것이다. 일종의 엑조티즘적 감정을 동반한 도취의 감정은 단지 남녀 관계에만 국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작가의 로망은 기묘한 대비관계로 표출되며, 사회적 맥락을 형성한다. 러시아어가 서툰 시골뜨기 외국인 유학생을 엘레나는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역할을 자처한다.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가 하면, 소련의 대학생 내부의 일상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추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호자의 모습은 엘레나의 실제 형상이기보다는 작가의 ‘이상화된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으로서,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보살펴줄 보호자에 대한 갈구가 엘레나라는 형상에 투영된 것이다. 이 전치된 욕망이 ‘정치적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현되어 ‘상상적 해결’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더 나

21) 양원식, 『엘레나』, 앞의 책, 50쪽.

아가 이 관계는 북조선과 소련의 관계에도 대입될 수 있고, 북조선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주의 조국 소련’에 기대한 바 일 수도 있다.

문제는 소설 『엘레나』에서 북조선 대사관의 유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텍스트는 심각한 균열 양상을 띠게 된다. 망명객으로서 무국적자의 위치를 선택했던 양원식은 북조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텍스트 속에 기입해 놓았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원일은 엘레나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는 염결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꿈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마을과 고향집’을 배회하면서 소설을 마무리한다. 이는 온전히 소련을 선택할 수도, 그렇다고 북조선을 선택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꿈으로 치환한 것이다. 엘레나와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면, 공적 영역을 포기하고 사적 세계로 투신해야 한다. 이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상황을 어떻게 텍스트 속에서 합리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작품의 결말을 ‘꿈’이라는 무의식 영역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경계인의 위치를 고수하려 했던 것이다. 무국적자인 경계인으로서 ‘북조선’과 ‘소련’ 사이에서 선택을 유보하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엘레나』의 연애 서사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3. 그로테스크한 복수의 서사 - 은폐된 공격성

소련인들은 고려인들을 ‘쏘바꼬예드’라고 비하해 부른다. ‘쏘바꼬예드’는 ‘개고기를 먹는 인종’이라는 의미이다. ‘소바까!’는 ‘개새끼’라는 일반적인 욕설이고, ‘쏘바꼬예드’는 여기에 의미를 첨가해 고려인을 멸시하는 뜻으로 쓰인다.

1984년에 창작한 단편소설 『쏘바꼬예드(개고기 먹는 인종)』²²⁾는 양원식이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은 소설이다. 이 작품은 2001년 <해외문학> 제3회 해외문학상에 그의 작품 『소나기』가 선정되었을 때, 자선소설로 <해외문학> 제4호에 게재한 작품이다. 대부분의 양원식 소설이 개인적 체험에 기반해 있는 반면, 이 작품은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적 구성이 돋보인다.

소설은 초반부터 교도소 교화소장 겸 간수인 볼츠꼬브와 고려인 죄수 문안드레이의 갈등으로 긴장감으로 고조시킨다. 볼츠꼬브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죄수들에게 상시적인 체벌과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한다. 볼츠꼬브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문안드레이를 꼭 ‘쏘바꼬예드’라고 호명하고, 이에 반발하면 가혹한 체벌을 가하곤 했다. 문안드레이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순한 소년이었다. 성격이 온순하였지만,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자랐다. 그런데 안드레이의 부모가 망기슬라크라는 소도시로 이사오면서 동년배들과 문안드레이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양족이며 몸집도 크고 키도 큰 싸샤라는 아이가 중심이 되어 그를 ‘쏘바꼬예드’라고 부르며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문안드레이는 집단적인 따돌림과 괴롭힘 속에서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싸샤가 하나뿐인 여동생 올라를 건드리는 추행을 자행한 것이다. 격분한 문안드레이는 식칼을 들고 나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싸샤를 살해하고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미성년 교화소에서 성년 교화소로 옮겨왔다. 그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쏘바꼬예드’라는 비칭에 민감한데, 교화소의 권력자인 볼츠꼬브가 그를 꼭 ‘쏘바꼬예드’라고 부르며 괴롭혔다.

민족적 차별과 폭력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교화소에서 터득한 문안드레이는 권투, 줌보 등 스포츠를 익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 교화소 내에서 자신의 재능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고 능

22) 양원식, 『쏘바꼬예드(개고기 먹는 인종)』, <해외문학> 제4호, 해외문학사, 2001.

력도 인정받았다. 사건은 그의 재능을 탐낸 교회소장 볼츠코브가 그에게 두 주일 동안 시내 꼬소몰리스까야 거리에 있는 ‘모르스까야 본나’(바다과도) 식당에서 일하도록 시키면서 발생한다. 볼츠코브는 문안드레이의 화가적 재능을 사사로이 이용해 식당의 간판, 장식화, 광고판 등을 정비하도록 시켰다. 문안드레이는 식당 주인에게 일을 해 주는 대신 매일 음식 찌꺼기 두통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자신이 투옥되기 전에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라이카를 찾으려는 것이 문안드레이의 복안이었다. 더불어 그의 흉중에는 무서운 복수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도 했다.

시내 오물장 주변에는 사나운 야생개들이 살고 있는데, 자신이 투옥됨으로써 버려진 라이카도 이들 야생개 무리에 섞여 있으리라고 문안드레이는 믿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시내 오물장에서 교회소쪽을 약 1킬로미터 씩 거리를 줄여가며 이 음식물 찌꺼기를 야생개에게 먹였다. 문안드레이는 열흘만에 드디어 라이카를 만나는 기쁨을 맞이하지만, 이주 일간의 식당일을 끝내고 교회소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처지다.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진다. 볼츠코브 교회소장과 창고주임 등은 교회소 뒷문을 통해 설탕가루포대 등 음식물 박스 등을 빼돌리는 비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날도 여느 때처럼 음식물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문안드레이에 의해 오물장에서 교회소 뒷문 쪽으로 유인된 개 무리들이 이들을 습격한 것이다. 볼츠코브 교회소장과 창고 주임, 짐꾼 죄수가 야생개들에게 물어 뜯겨 죽는다. 문안드레이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을 ‘쏘바꼬예드’라고 부르던 볼츠코브 교회소장을 바로 개들을 통해 잔인한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이 소설은 소련의 교회소를 중심으로 한 암흑세계를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흥미롭다. 일종의 스릴러 형식을 채택해, 도저히 전복이 불가능한 절대 권력에 약자가 대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통쾌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텍스트 진행 방식은 흥미로운 상상

력을 유발시킨다. 문안드레이와 볼츠코브의 관계는 소수민족으로 억눌려 살아왔던 고려인과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강제이주와 같은 물리력을 자행한 소련 정권 사이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억압 속에서 살아온 고려인에게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은 철저한 응징을 각오한 것이어야 했다. 게다가 강제 이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고립되어 있는 처지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양원식은 고려인이 처한 상황을 ‘쏘바꼬예드’라는 일상적 폭력과 대응시켰다. 이 소설은 ‘쏘바꼬예드’라는 언어에 응축되어 있는 차별의 메커니즘에 저항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정치적 무의식’이 발현되는 한 형태로 ‘예술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거론하기도 했다.²³⁾ 그는 ‘역사는 오로지 서술화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서술은 어디까지나 역사 자체는 아니며 다만 역사의 효과’²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양원식의 소설은 고려인의 처지를 ‘쏘바꼬예드’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정체성의 정치를 위한 탐색의 서사 - 무국적자의 감수성

양원식의 소설 중 가장 흥미로운 문제작은 『녹색겨주증』²⁵⁾이다. 이 작품은 <레닌기치> 1990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연재되었다. 3월 3일자 <레닌기치> 4회 연재분 하단에 (계속)이라고 쓰여 있으나, 후속 작품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작가가 직접 탈고한 『칠월의 소나기』

23) Fredric Jameson, Op.cit., 1981, pp.88~101.

24) 위의 책, 35쪽.

25) 양원식, 『록색겨주증』, <레닌기치>, 1990년 2월 28일~3월 3일.

에 수록된 「녹색거주증」의 결말도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애초의 구상대로 작품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으나, 작가 스스로가 완결된 작품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⁶⁾

작품은 러시아 《월가》형 고급 자동차 안에서의 대화로 시작한다. 일행은 영화촬영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잠불주 루고위예라는 산기슭에 위치한 양마장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소설 속에서 운전수인 이완이 국립영화촬영소의 노동 풍토에 대한 푸념을 늘어 놓으며 화자인 김명식을 불편하게 한다. 이완이 보기에 국립영화촬영소 근무자들은 늦게 출근하는 것이 예사이고, 심지어는 1주일에 한두번 직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립영화촬영소의 업무는 1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어 평소에는 느긋하게 지내다가 44분기에 이르러서 일을 몰아하는 경우가 많다. 김명식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 국립영화촬영소의 새 책임자로 대학 동창인 로사 쉐파노와라는 여성이 부임하면서, 그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었다. 마사노브가 맡아서 10월말까지 완성하기로 한 영화가 진척이 없자 로사 쉐파노와가 그 작업을 김명식에게 맡긴 것이다. 김명식이 촬영해야 하는 영화는 카자흐스탄의 인민화가이자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인 아미르 싸께노위츠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업무는 명식에게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간 그는 고려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를 만회함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소설은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다 산기슭에 위치한 촬영장까지 내무원이 찾아오자 급격

26) <레닌기치>에 게재된 「녹색거주증」과 단행본 『칠월의 소나기』에 게재된 「녹색거주증」은 서사의 골격부터 구체적인 기술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전혀 다른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레닌기치>판 「녹색거주증」은 1970년대 말로 되어 있는데, 『칠월의 소나기』에 수록된 「녹색거주증」은 1990년도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칠월의 소나기』에 수록된 「녹색거주증」은 한국 독자를 의식한 듯 작가의 해설조 어조가 빈번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레닌기치>에 수록된 「녹색거주증」을 저본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 전환을 맞는다. 내무원은 소련 공민이 아닌 사람이 내무부의 허락 없이 다른 구역으로 갔다가 발각되면 24시간 이내로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명식을 압송한다. 사실, 명식은 거주 이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무국적자의 처지였다. 그 상황은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어느 누가 좀 투박한 룡담, 특히 제 민족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조잡한 룡담을 할 때는 발각 성을 내기도 하고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는 결함도 있으며 제 근심 남 근심을 너무 하는 성품이다. 이것은 개성이라 치고 생활과 로동과정에 남다른 불편성을 느끼게 되는 객관적 조건에 얽매어 있어 보통일군들의 축에 들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즉 직장사업이나 자기 자체의 볼 일이 있어 어디로 가야 할 때 마음대로 다닐수 없는 처지이다. 다른 가맹공화국은 물론이고 자기 공화국내에서도 다른 주나 도시, 지어 일부 다른 구역에라도 가려면 적어도 열흘 이상의 기한을 두고 내무부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내무부의 허락이 있어야 비행기표도 살수 있는 무권리한 처지이다. 특히 직장일 때문에 어디로 출장을 가야 할 때는 직장 책임자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보통 여름철에는 비행기표를 사려면 적어도 20일전에 손을 써야 하는데 내무부의 허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적어도 한달 이상의 기한을 앞두고 출장 수속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직장일을 제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시보 및 기록영화사업이란 기동성이 가장 필요한 조건인데 그 출장수속을 하다나면 세월, 사건이 다 지나가 결국 어디로 다니는 일은 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다. 이런 문건 수속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 어디로 휴양을 하러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일은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데 오래전부터 습관되었다.²⁷⁾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소련에 거주하면서도 비국민으로 간주되었다. 1937년 10월 25일 강제이주²⁸⁾가 단행된 이유도 고려인을 잠정적인 일본

27) 량원식, 『록색겨주중』, <레닌기치>, 1990년 2월 28일자. 4면.

28) 극동지역에 있던 고려인 171,781명이 1937년 10월 25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단행되었다. 강제 이주 도중에 지식인 등 2,500~2,800명이 일제 스파이라

스파이로 간주한 결과였다. 스탈린 정권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성립으로 인해 극동 정책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소수민족인 고려인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을 단행했다. 강제 이주 이후에도 민족적 차별은 지속되었다. 고려인들은 1958년까지도 거주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었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다. 양원식의 경우는 더욱 특수했다. 그는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반종파 투쟁’의 여파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였다. 그는 자의에 의해 귀국을 안하고 망명객의 신분으로 소련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의 지위였다. 그가 20여년동안 소련에 살면서 3~4차례에 걸쳐 국적 취득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북한과 소련의 관계로 인해 거부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울분이 ‘녹색거주증’이라는 신분증에 투영되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녹색거주증은 공민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국적자의 증명서였다.

아미르 싸께노위츠는 공화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을 지위로 내세워 명식의 신분을 보증하지만, 내무원은 법적 원칙을 내세워 연행을 감행한다. 그로 인해 명식의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작업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명식은 알마아타로 되돌아가 내무기관의 책임자에게 선처를 호소하지만 막무가내다. ‘외국인들과 무국적자들의 문제만 보는 출국사증 및 등록부 책임자’ 시르토포부 소좌는 권위적인 태도로 ‘형법’을 들먹이며 오히려 위압적인 협박을 할 뿐이었다. 결국 명식은 녹색거주증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들며 ‘이것도 신분증이나?’라며 자조하고는 까마귀를 향해 3번 침을 뱉는 행위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다.

이 소설은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반종파 투쟁으로 소련에서 무국적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양원식의 경험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

는 죄명으로 총살당했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는 고려인들에게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중앙아시아의 생활에도 극심한 공포심을 동반하게 했다.(이명재·오창은, 앞의 책, 13쪽.)

다. 소설적 구성으로 버무려져 있지만, 실제 경험에 기반한 듯 구체적인 정황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에 기대볼 때 흥미로운 것인 언어, 혹은 이름에 투영되어 있는 양원식의 감각이다. 관계 설정의 곤란함이 이름, 호명되는 상황에 빗대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소설 속 화자인 명식은 대학시절 러시아 학우들로부터 ‘김치크’라고 불렸다. 이 애칭은 조선인들에게는 ‘김치국’으로 들렸지만, 러시아 학생들은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호명했다. 졸업 후에는 그의 이름 첫글자인 ‘명’의 첫발음을 따 ‘미하일’이라고 하고, 부칭은 많은 조선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와노위츠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김명식이면서 미하일 이와노위츠라는 이중의 호명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 호명되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바뀌기도 한다. 김명식이라는 이름에서 대학시절 ‘김치크’라는 애칭으로 불릴 때와, 졸업 후 조선사람들의 일반적인 호명에서 따온 미하일 이와노위츠라고 불릴 때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즉 유학생신분에서 무국적 망명자의 신분이 되는 위치의 변화가 이러한 호명법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그는 소련에서 끊임없이 잠재적 스파이로 규정되는 대우를 감내해야 했다. <레닌기치>의 『록색겨주증』에서는 김명식이 시르토프 부 소좌에게 “여기로 민주조선에서 고객이 오게 되어있을 때 당신들은 아무런 증명서도 수속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며칠동안 보냈던 일을 잊었습니까?”²⁹⁾라고 항변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상황이 『칠월의 소나기』에 수록된 『록색겨주증』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3년 전에 있는 일을 상기시킬까요? 북조선에서 최용건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도시를 방문했을 때 당신들은 아무런 증명서도 수속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가 뭐 최용건 위원장의 암살계획이라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을 것이죠?”³⁰⁾ 소련으로부터

29) 양원식, 『록색겨주증』, <레닌기치>, 1990년 3월 3일자, 4면.

30) 양원식, 『록색겨주증』, 『칠월의 소나기』, 앞의 책, 258쪽.

도 자신의 고국인 북한으로부터도 거부당한 양원식의 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경계적 위치에서 양원식은 제3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된다. 그는 국가 혹은 국적의 속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려인’으로서 자신을 구성한다. 즉,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삶을 모색할 것인가가 그의 삶의 화두로 부각하게 된 것이다. 그가 <레닌 기치> 문학예술부장에 이어 민족언어로 만드는 신문인 <고려일보> 사장으로 재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어(조선어)로 문학활동을 하는 이들이 점점 드물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왕성하게 고려인의 상황을 집요하게 형상화하고, 세대 갈등의 문제를 고려인의 시각에서 집요하게 형상화한 것도 ‘고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향한 고투였다.

5. 유보의 감각과 정치적 무의식

양원식은 한 글에서 자신의 예술관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는 문학, 영화예술, 무대예술 그리고 심지어 미술, 음악작품까지도 사상, 이념의 내막을 가장 중요시 한다. 즉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이론에 기초하여 모든 창작품을 형성하며 ‘인간이 기본’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학, 예술작품이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시켜야 국가 영화위원회에서 받아준다. 기록영화의 주인공도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며 공산당 선전선동부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너무도 따분한 점이 많아 소련기록영화들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나는 사상, 이념문제를 뚜렷이 귀착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연현상, 과학적 의의가 있는 주제들을 골라 영화작품들을 만들곤 했는데 이번만은 나의 취미와 견해에 알맞지 않는, 결국 하는 수없이 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창작인들도 이

렇게 자기 의사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먹고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³¹⁾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서 양원식은 정책적 입장에서 제작되는 예술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다. 따라서 그는 직업적 역할로서 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작품 창작과는 거리를 두어왔다. 한 대답에서 양원식은 “나는 이념적인 작품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신문사 사장이라는 직책상 행사시를 쓴 적은 있지만 “행사시를 내 작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³²⁾ 그는 비교적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예술 창작에 임했다. 하지만, 그의 텍스트는 ‘이야기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 무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는 『엘레나』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좌절감을 연애서사로 알레고리화했다. 북조선의 종파투쟁의 여파로 유학생의 지위에서 무국적자 신분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연애·성장 서사에 기입해 놓았다. 이 작품은 1950년대 소련과 북조선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에서 고려인이 처해 있는 약자의 감성이 무의식 영역에서 ‘위로받는 서사’로 변형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쏘바꼬예드(개고기 먹는 인종)』은 『엘레나』와 대립되는 위치에서 인종적 갈등을 다룬다. 『엘레나』가 화합과 낭만의 서사라면, 『쏘바꼬예드』는 갈등과 복수의 서사이다. 이 작품은 일상 생활에서 고려인들이 겪는 인종적 갈등이 문학적 상상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또한, 소련 내에 존재하는 차별의 메커니즘을 교묘하게 드러내면서, 예술의 영역에서 저항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녹색거주증』은 작가의 실제 경험이 투영되어 있는 문제작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31) 양원식, 위의 책, 249~250쪽.

32) 이명재 외, 『좌담 - 재소 고려인 문학의 특징과 발전 방향』,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앞의 책, 371~372쪽.

이 작품에서 양원식은 ‘경계인(고려인)의 경계인(무국적자)’로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삶의 양태를 ‘녹색거주증’이라는 상징을 통해 그려냈다. 『녹색거주증』은 북조선에도 소련에도 속할 수 없어 무국적자이자, 잠재적 스파이로 규정된 ‘경계인의 곤란한 위치’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실존적 상황을 재인식함으로써 양원식은 ‘경계인(고려인)의 경계인(무국적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했다.

그렇기에 양원식의 문학세계는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는 때로는 냉전 체제와 북조선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윤리적 갈등을 하는 젊은이의 내면세계를 그리는가 하면, 이웃과 갈등하면서도 디아스포라적 감성을 갈무리한 채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고려인의 고통을 형상화 하기도 했다. 또한 알레고리적 기법을 통해 문학의 영역 속에서 상징적 복수를 감행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기획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감수성은 양원식의 문학 세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선택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생의 감각이다. 이러한 감수성은 정치적 억압 상태에 있는 약소자(minority)들이 취하는 생존의 전략이며,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의식이기도 하다. 양원식의 문학은 바로 이러한 이주민의 특징적 감각을 적절하게 서사화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Fredric Jameson, *The Politic Unconscious -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p.88~101.
- 강희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문학들, 2010.
- 김재용, 「전후 북한문학의 도식주의 비판」,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53쪽.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 출판부, 2004.
- 김학준, 『북한 50년사』, 두산동아, 1995, 189~190쪽.
- 량원식, 「록색겨주증」, <레닌기치>, 1990년 2월 28일~3월 3일.
- 량원식, 「조명희 선생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자료」, <레닌기치>, 1990년 4월 4일자.
- 박종철, 「북한의 종파사건과 중국」,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 양원식, 「부자유 속에 태어난 신문 - 고려일보의 어제와 오늘」, <한민족공동체> 통권5호, 해외한민족연구소, 1997, 278쪽.
- 양원식, 「쏘바꼬예드(개고기 먹는 인종)」, <해외문학> 제4호, 해외문학사, 2001.
- 양원식, 「엘레나」, 『칠월의 소나기』, 어뮤징 아카데미, 2007, 42쪽.
- 양원식,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학이 걸어온 길」. <고려문학> 통권 1호, 중앙아시아문인협회, 2006, 37쪽.
- 양원식, 『칠월의 소나기』, 어뮤징 아카데미, 2007, 244쪽.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 이명재 편, 『소련 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 이종석, 「북한의 권력과 역사학 :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 -친소파·남로계·연안파 ‘숙청’에 대한 최초의 연

- 구], <역사비평> 통권 8호, 역사비평사, 1989,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77~78쪽
-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 최명숙, 『양원식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국제한인문학연구> 제 6호, 국제한인문학회, 2009)
- 콜린 맥케이브, 최윤식 옮김, 『F. 제임슨의 문화이론과 영화분석』, <공연
과리뷰> 제37호, 현대미학사, 2002, 197쪽.

<Abstract>

Politics of Identity Appeared in Korean Diaspora Literature

- With focus on Yang Won-Sik's Novels

Oh, Chang-Eu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Central Asian literature through Yang Won-Sik's novels. Yang Won-Sik represents the type of the 3rd generation among Korean-Central Asian writers' generations. He had to live as a political exile who could not acquire nationality among Korean Diasporas who had to endure disadvantages of a minority race within the former Soviet Union for a considerable time. The reason why we take note of Yang Won-Sik is that he did literary activities with relatively clear artistic sense of identity. His novels maintained critical position on art that becomes political means while standing against socialistic realism. His view of art was not only helpful to grasp the daily life of Korean-Central Asians but also made it possible to have room for interpreting his literary works in diverse ways.

Yang Won-sik published his novels on the newspaper of the former Soviet Union, <Lenin Banner>, and in Korea, collection of novels July Shower (2007) was published in the form of a posthumous collection after his death. In the novels contained in this collection, romantic narrations often appear. Among his typical works are Elena and July Shower. In these narrations, the stateless marginal person's attitude

to maintain his position while reserving the choi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is reflected.

His novels <Sobakoyed (the race eating dog meat)> and <Green Residence Certificate> in which he describes the racial discrimination he experienced in the former Soviet Union are particularly noteworthy controversial works. In these works, Yang Won-Sik described the life style of Korean-Central Asians as ‘the marginal persons (Korean Diaspora) of the marginal persons (stateless persons).’ <Sobakoyed (the race eating dog meat)> goes toward artistic solution in the imaginary realm while <Green Resident Certificate> embodied the artist’s sense of identity enforced by the limitations of social status through substituting concrete events.

Yang Won-Sik’s novels are worth shedding new light on the aspect of characteristically describing the politics of the identity of Korean-Central Asians. While he described the inner world of young people who came into ethical conflict resulting from the cold war system and North Korean political situations, he embodied the sufferings of Korean Diaspora who had to lead a daily life finishing off the sentiments of Diaspora in conflict with the neighbors. He also showed the appearance of designing catharsis by going through symbolical revenge in the realm of literature through allegorical techniques.

The sensitivity of Korean-Central Asians that can be recognized in Yang Won-Sik’s literary world is the sense of life that tries to prove one’s existence by reserving the choice. This is the survival strategies that the minority takes in the state of political oppression and also the sense of insecurity inherent to Diaspora identity. Yang

Won-Sik's novel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ppropriately grasped the characteristic senses of emigrants as 'reserved or delayed senses.'

Key Words : Korean Diaspora literature, Yang Won-Sik, politics of Identity, political unconsciousness, Lenin Banner, July Shower, Elena, Sobakyeo, Green Resident Certificate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